

春秋 호국성지 강화도를 다녀와서

연미정. 고려궁. 용흥궁. 강화성당. 전등사. 광성보. 수하민예박물관



2010-11년도 고작 1년간 서울예지로타리클럽의 회장으로 수고한 대가로 6년이 지난 올가을도 춘추회 여행을 갑니다. 기쁘게 기다렸고 기대 가득 담고 말입니다. 이번엔 강화도. 우리나라 역사의 집약체이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선조들이 심어놓은 학문과 역사의 지혜를 마음으로 새기고 몸으로 느껴보는 춘추회, 지금 까지 여행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여서 가볍게 떠납니다.

한반도 오천년 역사가 시작된 곳, 수많은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호국성지 강화도, 고려 때 몽고침략을 피해 왕궁을 개성에서 강화로 옮기고 39년간 버텼던 왕궁과 성터, 그리고 근대에는 프랑스군의 병인양요, 미군함대의 침공 신미양요, 일본 운양호사건 등 외세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했던 진(鎭). 보(保). 돈대(墩臺) 등을 돌아보며 외적으로부터 나라지킴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느껴보는 기회였지요. 임진강, 예성강, 그리고 한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강화도에서의 첫 방문은 마치 제비꼬리와 닮았다 해서 지어진 연미정, 느티나무가 만들어준 가을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이어 방문한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영국의 성공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지은 성당인데 절의 일주문(一柱門) 같은 솜을 대문에는 십자가가 그려있고, '구원의 방주'형국의 터에 세워진 한옥 건물은 외부와 다르게 이국적인 내부설계로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더군요.

이어서 철종생가를 둘러 곤궁하게 지내던 철종의 처지를 헤아려도 보았습니다. 연이어

고려시대 항몽기의 수도였던 궁지, 궁성, 중성, 외성 등 삼중성을 지어 철옹성을 만들어 지켰던 궁지를 둘러보았는데



글. 서울예지RC봉사위원장 강월석

김상국 교수님의 강화도 역사와 호국성지 해설은 전문 해설사를 무안케 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로타리에는 보배들이 참 많으세요 ^^

다음 행선지는 특별한 보너스! 시골길에서 만난 작은 박물관, 수하민예박물관에서의 문화산책은 예

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개관준비중인 이 민예박물관은 덩치도 크지 않고 웅장하지도 않은데 명장과 이름없는 장인의 이야기가 가득하네요. 볼수록 다시보고 싶어지는 선비문화, 사랑방의 옛 가구와 두렛소리 들리는 듯한 농기구들, 연타치듯 소리들리는 듯한 다듬잇돌, 굴뚝의 연가(煙家) 등에 숨어있는 예술성을 찾아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회원님들도 모두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마을의 문화까지 담아낸 아주 작은 박물관의 풍성한 애깃거리에 정신을 쏙 빼앗기신 듯합니다.

더욱 우리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한 아래층의 방송유물전시관은 1950-60년대로 점프해 들어가게 하네요. Ray Peterson의 Corinna, Corrina가 울려퍼지니 우리는 훌쩍 젊은시절로 돌아가 음악다방에 앉아 있습니다. 1940년대 Theater Sound 스피커의 성능에 감탄하면서요. 여기에 더해 밤새 대추를 다려 내놓은 한동선 코러스회장님의 차와 떡은 한 회장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네요. 지금도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로타리안이 된 건 분명 현명한 노후 생애설계였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해학과 다산 정약용의 계몽적 정신을 실천하시는 박영구 前 총재님, 인연은 운명이고 사람관계는 노력이라는 말 그대로를 변함없이 실천하시는 박수부 차차기총재님 외 각 클럽회장님들과의 여행은 유람의 개념만이 아니고 선배님들의 인생경륜과 지혜와 남다른 유모어가 있어 늘 즐겁습니다.

머리 속엔 역사의식 한가득, 돌아오는 배낭에는 강화도 노랑고구마와 전등사 공양주가 담긴 순무김치로 풍년의 농사군 마냥 행복도 가득 담고 돌아옵니다.

내년 3월에도 날짜를 잡아놓았으니 지화자 좋~다.

